유키구니 식물원

유키구니 식물원에는 나가오카시의 눈이 많이 쌓이는 마을산에 자생하는 식물이 850 여 종 이상 있습니다. 마을산이란 옛날에 사람들이 농사일이나 식량 채취, 땔감을 구하던 산기슭 지대를 가리킵니다. 마을산의 천연자원은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엄중하게 관리되고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에 따라 마을산은 더이상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치될 경우, 마을산의 섬세한 생태계는 원래의 삼림으로 되돌아가 과도하게 숲이 우거지거나 외래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게 됩니다. 유키구니 식물원은 고산 식물이나 해안 식물, 외래 식물, 관상식물 등이 없는 균형 잡힌 마을산의 환경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원 산책하기

매표소의 오른쪽에 있는 큰 지도에는 때마침 절경인 계절 꽃이 표시되어(일본어로) 있습니다. 또한 지도에는 우연히 만날 가능성이 있는 새, 나비, 기타 곤충의 사진도 있습니다. 유키구니 식물원을 전부 산책하려면 최대 5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계절마다 지도를 확인하고 예정 시간 내에 둘러볼 수 있는 산책 루트를 사전에 계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중 내내 즐길 수 있는 재래종

유키구니 식물원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재래 식물이 피어납니다. 봄에는 노루귀(*Hepatica nobilis* var. *japonica*), 얼레지, 산벚나무, 제비붓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에조 수국, 도라지, 자귀나무 등 여러 종류의 백합이 피어납니다. 가을에는 바늘꽃, 석산, 작살나무, 용담, 털머위 등이 피어납니다. 또한 80 여 종의 새, 45 여 종의 나비, 40 여 종의 잠자리, 토끼나 너구리와 같은 삼림 동물 등도 연중 내내 볼 수 있습니다.

나가오카의 상징 '노루귀'

유키구니 식물원이 보호에 특히 힘쓰고 있는 식물 중 하나는 노루귀입니다. 영어로 헤파티카, 버즈 아이 프림로즈라고도 불리는 이 꽃은 눈이 녹는 동시에 빠르게 피기 시작하여 봄의 도래를 알리는 상징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분홍색, 흰색, 청자색의 노루귀는 낮은 위치에서 지면 가까이 펼쳐지며, 계절의 변화를 고운 빛깔로 알리는 꽃으로 마을산의 경사면을 뒤덮습니다. 서식지의 감소와 남획으로 인해 희귀해졌지만, 나가오카 시내의 유키구니 식물원과 묘호지 절, 국영 에치고 구릉공원 등에서 소중히 길러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장소

유키구니 식물원은 자연 보호 활동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장으로 1984 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주로 자원봉사자이며 그중에는 젊은 세대에 지식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노년층의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식물원에는 아이들을 위한 주제로 특별 공개 강의가 개최됩니다. 6 월 중순부터 7 월 상순까지 야간 특별 개장 시기에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나가오카 들새 모임'의 후원으로 조류 탐사 모임이 개최됩니다.